

# 연금펀드 '최강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적립에서 인출까지' 종합 연금 솔루션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펀드 부문에서 국내 운용사 수탁고 1위(6조원 이상)에 올라 있다. 연금펀드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는다.

연금은 장기투자하는 특성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자산배분 차원에서도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금전문 운용사인 미래에셋은 투자자에게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투자 지역에 대한 자산배분 라인업을 구축했다.

전통적인 투자자산을 넘어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과 안정적인 연금자산운용 투자솔루션을 제공한다.

2011년에는 투자자가 은퇴 준비 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 시점(Target Date)을 가진 펀드에 투자하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뤄지는 미래에셋 TDF(Target Date Fund) 시리즈를 출시했다.

외국 운용사 위탁이 아닌 미래에셋의 12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운용한다.

목표 시점에 원금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기대수익률과 손실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글로벌 ETF와 미래에셋의 검증된 펀드를 활용한다.

올해 들어서만 1천800억원 넘게 늘어 설정액이 3천500억원에 육박한다.

적립에서 인출의 시대에 발맞춘 '미래에셋평생소득펀드 시리즈'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포함한 은퇴 후 현금흐름이 필

요한 투자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연금펀드 도입기에는 적립식 투자를 바탕으로 위험자산 투자가 주를 이뤘으나 시장이 성숙하면서 적립한 연금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은퇴소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을 활용하면 인출 없이 퇴직연금으로 100%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 2013년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마케팅본부를 각각 신설해 시장을 주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류경식 부문장은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 은퇴자산의 적립에서 인출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금투자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